

● ● ● ● 협회소식 _ '협회 사무실 확장 · 이전 현판식'

● '협회 사무실 확장 · 이전 현판식'



지난 5월 14일, ESCO협회의 새 보금자리인 서울 구로동 코로롱디지털파워빌라트2차 협회사무실에서 '협회 사무실 확장 · 이전 현판식' 을 가졌다.

협회는 그동안 회원사 증가와 자체투자실적인증 발급 등 협회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사무실 확장이 요구돼 왔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범용 회장을 비롯해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홍순용 실장, 한국열관리사협회 김재영 회장 등 협회 임직원과 회원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범용 회장은 "이번 사무실 이전으로 ESCO회원사간 원활한 교류의 장을 만들게 됐다"며 "ESCO성장은 물론 회원사의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이전한 협회사무실은 회원사들이 찾아와 업무를 논의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 곳곳과 연결이 쉽도록 교통이 편리한 최적의 위치다.

고근환 전무는 "협회 사무실을 확장, 이전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회원사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업무논의도하고 회원사간 정보교류도 이뤄지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현판식이 끝난 후 협회에서 준비한 저녁식사가 협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 ESCO협회 안내 : TEL. 02-2081-2170 FAX. 02-2081-2174 <http://www.esco.or.kr>

● 2단계 ESCO투자사업, 51.1% 접수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중 ESCO투자 사업에 대한 2단계(4~5월) 접수 결과 예산대비 절반수준 밖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SCO추천 예산 886억원 중 51.1% 수준인 453억원이 접수됐다. 특히 중소기업에 배정된 예산은 28.8% 접수됐다.

상반기 예산 총 886억4600만원은 대기업에 4333억9800만원과 중소기업에 452억48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상반기까지 대기업분은 322억100만원이 접수돼 74.3%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분은 28.8%에 불과한 130억4400만원이 접수됐다.

●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자문회 개최

협회는 지난 4월,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와 진행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과 관련해 '에너지합리화사업 자문단 실무단' 회의를 지난달 27일 가졌다.

향후 업무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협약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 조치사항 등이 논의됐다. 또 초중고교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추진 및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 'ESCO실무자 교육'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

지난달 22~23일, 이틀에 걸쳐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열린 'ESCO실무자 교육' 후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 질의는 ▲교육운영 시스템이 전문적인지 ▲강사진이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는지 ▲교육, 교재장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교육내용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등 총 17가지의 질의로 구성됐다.

이중 교육운영(학사운영, 강사운영, 교과과정편성, 강의실운영)시스템이 전문적인가라는 질의에 78%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ESCO사업을 실제 수행한 분의 실제 적용사례 위주의 교육이었으면 한다는 의견과 질의 시간이 많이 부족해 아쉬웠다는 기타 의견이 접수됐다.

● 2분기 ESCO자체투자실적 인정

오는 6월 12일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2분기 ESCO자체투자실적 인정' 심의회가 개최된다. 심사대상은 동서기연, 태광이엔씨, 한국전력기술이 각각 1건씩 심사를 받으며 금액은 32억 3316만 5000원이다.

심의내용은 신청 투자사업 대상 협회 기술평가 결과 인정 심의와 기술평가시 특이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등이 진행된다.